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이동군청 운영
고창읍서 고충민원 해결

유기상 고창군수는 17일 고창읍을 찾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동군청에 참여한 고창읍주민들은 고창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 기준등 보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수구 정비 정례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동선미를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석탄미를 100세 어르신 방문과 유재관씨 가족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나눔과 봉사로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군은 이번 이동군청에 접수된 각종 고충들과 견의사항들을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주민에게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작은 도서관 16곳 책 소독기 지원 주민 호응

정읍시가 지역 내 작은 도서관 16개소에 살균소독과 면지 제거가 가능한 책 소독기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생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책 소독기는 99%의 우수한 살균력과 면지 제거까지 가능해 책을 통한 바이러스 교차 감염을 차단 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한다. 또한, 자료실별 책 소독 부문 운영으로 업무 효율증가는 물론 대중 감염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분 내외로 끝나는 간편한 사용법으로 책을 대출·반납할 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내 대표 디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중 대혁명 정신 되짚는다

정읍시, 동학혁명 국제학술대회… 25일 한국프레스센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당위성 살펴보는 계기 마련

정읍시가 주최하고 (주)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가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해 한국 근현대 민중운동의 정점을 이루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가치와 당위성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민중 대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그 역사를 되짚어 보

고, 당시 동학농민군이 지향하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익두 전북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문화’ 기조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미야자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배향섭 성균관대 교수의 ‘동학농민군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방민호 연변대 교수, 조재곤 서강대 교수, 유비다 고려대 교수, 김원호 아트코리아 국미을 대표, 김

탁 한국학중앙연구원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신순철 원광대 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토론자가 나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서울신문사’ 계정과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물려받고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동학 선양사업에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단법인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유영준)가 17일 지역 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제14회 어버이 건강 효 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어르신들 모처럼 ‘웃음꽃’ 활짝

정읍시, 효 문화 축제 성황

사자사를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유영준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롭고 우울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랑나눔공동체가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어르신들이 오늘 잔치에서 행복을 느끼 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삶을 버틸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 발굴 노력을 함께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나눔 공동체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찾아가는 식료품 지원, 어버이 건강 효 잔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더불어, 매주 수·금요일 이동하는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며 지역 내 소외 계층의 이불 빨래 세탁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각종 공사, 관내 장비·인력·자재 사용을”

권의현 부안군수, 간부회의

권의현 부안군수는 최근 주요 간부 회의에서 “코로나9 장기화 등으로 관내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관·군·소에서 각종 공사 및 사업추진시 가능한 경우 관내 장비·인력·자재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관내 장비·인력·자재 사용

을 계약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이를 통해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의현 군수는 또 “2021년 본예산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반영액 증가로 불가피하게 경상적 경비 등을 2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해 편성할 방침”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이 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권의현 군수는 “겨울철은 난방비와 방한용품 구입비 등 지출 부담이 늘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무신고 숙박업소 LP가스 안전 특별점검

부안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LP가스 안전 특별점검을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무허가 팬션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 관내 숙박업소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겨울철 난방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펜션 등을 운영하는 무신고 숙박업소 및 농어촌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숙박업소 위생점검과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확인인서 점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 범령 준수 여부 등이다.

김창조 미래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

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안전이 첫 번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관광과 문화의 중심에 부안을 심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LP가스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고창일반산단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첫 삽’

국내 최고 식품전문 특화산단으로 도약하는 ‘고창일반산단’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고수면 고창일반산단지 안쪽 부지에 ‘고창일반산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고창군은 알짜 기업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기하게 될 전망이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단련실)과 문화시설(작은도서관 및 작은목욕탕)은 물론, 산업단지 지원시설(일자리 지원센터)과 유아시설(유아체육실 및 직장어린이집)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준공 계획이다.

군은 그간 공모를 통해 제1回 설계를 비롯으로 고수면 지역대표와 입주

예정기업 등에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동시에 현장 지침조사 등을 통해 신축부지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증한 후 첫 삽을 뜨게 됐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고창군은 알짜 기업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기하게 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산업단지내 문화·체육·편의시설이 갖춰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취미활동을 돋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통해 청·장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